

# 불황도 이겨낼 똑똑한 ‘밸류 와인’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몇 가지 질문에 답해보자.  
첫번째. 비싼 와인은 맛있다? 두번째. 싼 와인은 맛이 없다?  
첫번째 질문엔 ‘예스(Yes)’라는 답변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친한 지인들이 맛있는 와인 좀 추천해달라고 하면 농담삼아 이렇게 말한다. “와인샵 가서 비싼거 사세요. 와인은 비싸면 맛있어요.”  
비싼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맛은 보장되었지만 그 가격만큼 값어치를 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50만원, 100만원 짜리 와인을 마시면 역시 기본급 와인과는 확연히 다르겠지만 그 차이가 몇 십만원 만큼은 아닐 수 있다. 비싼 와인을 선보이는 자리에서 보면 감탄사 만큼이나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같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 두번째 질문 역시 ‘예스’로 답할까. 의외로 ‘노(No)’라고 하는 이들이 더 많다. 이미 싼 가격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가성비 계산도 나왔겠지만 신대륙의 훌륭한 기후조건



/와인스펙테이터

과 나날이 발전해가는 양조기술 덕분이다. 한 상 차린 자리에 곁들이기도, 아니면 하루의 피로를 씻으려 한잔씩 훌쩍거리기에도 아쉬움이 없을 와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  
와인스펙테이터가 가성비 와인 가운데서도 가격 이상의 만족을 주는 ‘밸류(value)’ 와인들을 골라냈다. 100점 만점 기준에서 90점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가격은 40달러(원화 약 5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물론 우리나라로 수입되면 세관에 제반비용까지 더해져 가격이 좀 뛰긴하겠지만 그래도 가성비 매력은 여전하다.  
1위는 미국 나파밸리 와인으로 ‘보리우 빈야드 나파밸리 카버네소비뇽 2019’이다.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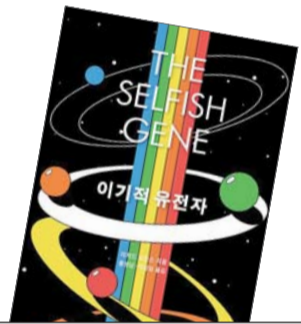
리우 빈야드는 나파밸리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유서깊은 와이너리 가운데 한 곳이다. 1900년에 포도밭을 사들이면서 시작됐으니 말이다. 전설적인 와인메이커 안드레 켈리스체프를 영입하면서 보리우 와인은 나파밸리 와인의 정석이라도 불리게 됐다. 가격은 33달러. 나파밸리의 대표품종 카버네소비뇽이 갈수록 몸값이 올라 세자리수가 보통인 요즘, 착해도 한참 착한 가격이다. 장기 숙성도 가능해 시음적기가 무려 2030년까지다.  
2위는 ‘디코이 리미티드 나파밸리 레드 2019’로 역시 미국 나파밸리 와인이다. 지역 명을 쓰려면 최소 85% 이상의 포도를 해당 지역에서 수확해야 한다. 나파밸리의 포도값을 감안하면 30달러는 인상적인 가격이다.

말롯과 카버네소비뇽, 말벵 등을 섞어 만들었다.  
다음은 이탈리아 와인인 ‘빌라 안티노리 토스카나 2019’다. 밸류 와인 리스트라더니 와인평가들의 이름이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 1928년부터 생산된 빌라 안티노리는 산지 오베제와 카버네소비뇽, 말롯 등으로 만들었다. 2019년 빈티지가 90점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대형마트에서 2만원 안팎이면 살 수 있다.  
스페인 와인도 이름을 올렸다. ‘보데가스 마르케스 데 무리에타 리제르바 2018’이다. 무리에타 와이너리의 철학이자 목표인 ‘우아함, 신선함,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와인으로 평가받았다.  
화이트 와인으로는 ‘조엘 고트 캘리포니아 소비뇽블랑 2021’이, 스파클링 와인으로는 ‘뎀 나파 브뤼 프레스티지 NV’가 뽑혔다. 가성비 하면 빠질 수 없는 아르헨티나 와인으로는 ‘도메인 부스케 말벵 2021’이 13달러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밖에 ‘켄달잭슨 소노마 카운티 빈트너스 리제르바 말롯 2019’, ‘몬테니아 윌라메트 밸리 피노누아 2019’, ‘조셉 드루앙 보통 샤블리 2020’ 등이 최고의 밸류와인으로 10위 안에 들었다.  
/smahn1@metroseoul.co.kr

## 주말은 책과 함께

### 성공한 유전자의 ‘비정한 이기주의’

몸집이 작은 새들은 독수리나 참매 같은 사나운 맹금류가 서식지 주변을 맴돌면 독특한 ‘경계음’을 낸다. 포식자는 소리를 낸 새를 쫓고, 근처에 위험 요소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무리들은 사냥꾼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달아난다. 일별은 꿀도둑에 침을 쏘 먹이를 훔쳐가지 못하게 만들지만, 침입자를 공격할 때 생명 유지에 필요한 내장이 침과 함께 빠져 얼마 안 가 죽게 된다. 톰슨가젤은 표범이나 치타가 무리를 향해 다가오면 경중경중 뛰는 도약 행동을 한다. 이는 위험에 처한 동료들에게 경고하는 동시에 뛰는 행동으로 포식자의 주의를 자신에게 돌리는 효과가 있다.  
‘이기적 유전자’는 위에서 열거한 이타적인 행동들이 사실은 모두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전자의 이기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책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유전자가 만들어 낸 생존기계이고, 우리는 유전자로 알려진 이기적인 분자를 보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래밍 로봇 운반자라고 주장한다. 성공한 유전자에 대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건 ‘비정한 이기주의’라고 저자는 말한다.  
책에 따르면, 매를 발견한 새가 경계음을 내는 건 혼자 숨었을 때의 이익이 크지 않아서다. 동료 중 하나가 포식자의 눈에 띄면 자기를 포함한 전체가 다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무리를 이탈해 홀로 도망가면 군집 생활의 이점을 잃게 된다. 고로 경계음을 발산하지 않으면, 그 개체는 자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일꾼이 행하는 자폭행위도 결국 같은 유전자



####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지음/홍영남, 이상임 옮김/울유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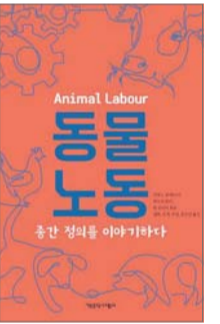
를 가진 다른 개체를 보호함으로써 유전자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다. 불임인 일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아이 낳는 개체(여왕벌)를 사육한다. 일꾼들은 번식 개체를 조종해 그가 일별의 몸속에 있는 유전자의 복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게 만든다. 침입자에게 침을 쏘 죽더라도 그 유전자는 보존되기에 일별은 자살을 통한 자기희생에 망설임이 없다.  
톰슨가젤의 높이뛰기도 실은 이타주의와 관계가 멀다. 자신을 노리는 표범에게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지 과시함으로써 사냥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일깨워 포식자가 다른 사냥감을 노리게 하려는 가젤의 전략이라고 책은 설명한다.  
저자는 “어떤 집단의 개체들이 선견지명이 있 기만 하다면, 이기적 욕망을 억제하고 집단 전체의 붕괴를 막는 것이 중국에는 자기들의 최대 이익이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632쪽. 2만원. /김현정 기자 hjk1@

### 동물노동

살럿 E. 블래너 외 13명 지음/책공장더불어

‘농장동물, 동물원 동물, 실험동물...’ 인간은 거의 대부분의 동물노동을 착취하면서 살고 있다. 동물을 도구나 자원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동물을 노동자로 인정하면 그들의 지위가 올라갈까? 약자 착취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속의 노동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착취와 소외를 가져온다. 책은 노동이 적절하게 규제되면 동물이 노동을 통해 복지를 누

리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무엇이 노동이고 누가 노동자인지에 대한 모든 편견을 뒤엎을 수 있다고 책은 이야기한다.  
400쪽. 2만원.



### 우크라이나전쟁과 신세계질서

이해영 지음/사계절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무장 해제와 나치즘 제거, 동남부 지역의 주민 보호를 목표로 하는 ‘특수 군사작전’을 명령했다. 러시아군은 키예프와 하르코프,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핵심 시설물에 미사일을 떨어뜨렸고, 북부·남부·동부 세 방면으로 공격을 감행했다. 책은 이 전쟁이 미국이 감독하고 젤렌스키가 연기하는 드라마라고 주장한다.

냉전은 끝났고 소련은 지상에서 사라졌으며 푸틴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지만, 네오콘은 자신들의 계획표에 의 해 공산주의 소련의 빈자리를 민주주의 러시아로 바꿨다는 것이다. ‘적이 저기에 있다고 외치는 자가 바로 적’이라고 책은 말한다.  
336쪽. 1만8000원.



### 컬티시

어맨다 몬텔 지음/김다봄, 이민경 옮김/아르테(arte)

왜 말쑥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사기, 음모론에 빠져들까. 배울 만큼 배운 이들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광적으로 추종하는 이유는 뭘까.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사람들이 해시태그로 그날의 운동을 인증하며 함께 자기관리를 숭배하게 하는 동력은 뭘까. ‘컬티시’는 사람들을 자발적이고 열성적인 추종자로 사로잡는 ‘컬트’ 언어의 비밀을 파헤친 책이다. 저자

는 사이비 종교, 다단계 마케팅 회사, 뷰티·피트니스 산업과 SNS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방식으로 꿈꾸는 자들의 희망을 착취하는지 낱낱이 까발린다. 344쪽. 2만4000원. /김현정 기자



## BS100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수도권 대설특보...항공기 175편 지연 /사진 뉴시스
- ▲ 검찰, ‘김치코인 부정거래 의혹’ 빚뚝 압수수색

- ▲ 경실련,尹정부 장·차관 7명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 안내
- ▲ 오세훈, 내달 2일 정장연과 단독 공개 면담



- ▲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이종처벌 아냐 /사진 뉴시스
- ▲ ‘대통령선거 투표함 탈취’ 인터넷방송인 2명, 집행유예